

‘잔혹사’ 끝은 ‘오뎅이’ 한국 쇼트트랙 저력 과시

쇼트트랙 임효준 첫 금

男 1500m 올림픽 신기록

女계주, 넘어지고도 예선 1위

내일 최민정 500m 금 도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종합 4위를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호자종목’ 쇼트트랙이 신바람이 됐다.

대회 개막 첫날인 지난 10일 한국의 첫 금메달이 나왔다. 남자 쇼트트랙의 임효준(한국체대)은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10초485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강력한 메달 후보였던 황대현(부흥고)이 두 바퀴를 남겨 놓고 넘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국은 쇼트트랙 첫날 걸린 금메달을 가져오면서 ‘쇼트트랙 금메달 4개, 종합 4위’라는 목표에 청신호를 쏘았다.

임효준이 물꼬를 튼 쇼트트랙의 메달 행진의 바통은 최민정(성남시청)이 이어받는다.

최민정은 이날 열린 여자 500m 예선에서 42초870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쇼트트랙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이지만 여자 500m의 정상은 아직 한 번도 밟지 못했다. 1998 나가노올림픽 전이경, 2014 소치올림픽 박승희의 동메달이 최고의 성적이다. 최민정은 13일 500m 정상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여자 계주팀도 안방에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제대로 과시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인 한국 여자 계주팀은 예선 1조 경기에서 넘어지고도 올림픽 신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심석희(한국체대)-최민정-김예진(평촌고)-이유빈(서현고)으로 구성된 여자 계주팀은 전체 27바퀴 중 23바퀴를 남겨준 초반, 이유빈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순식간에 최하위로 밀렸다. 그러나 손바닥 타치를 한 최민정이 시작으로 대역전극이 시작됐다. 조급씩 격차를 줄여간 한국은 11바퀴를 남겨놓고 최민정을 앞세워 3위로 올랐다. 이어 심석희가 8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올라가면서 관중석을 열광시켰다.

한국은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4분06초387의 올림픽 신기록까지 만들어낸 강렬한 추격전이었다. 여자 계주팀은 20일 오후 7시 금메달을 위해 다시 호흡을 맞춘다.

쇼트트랙 첫날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목표 가는 길이 쉽지는 않다. 변수가 많은 종목인 만큼 여자계주 예선처럼 뜻밖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임효준이 1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18 평창 메달리스트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임효준

- 출생 1996년 5월29일
- 소속 한국체육대학교
- 주요 경력 및 수상
 - 2012 동계유스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은메달·1,000m 금메달
 -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남자 1,000m·1,500m 금메달
 - ISU 월드컵4차 남자 5,000m 계주 금메달
 -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올림픽 신기록)

자료/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연방뉴스

고 띄엄띄엄 예정된 경기 일정도 경기력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한국의 첫 금메달리스트가 된 임효준은 10일 경기가 끝난 뒤 “이번 올림픽에서 경기 팀이 가장 길다고 한다. 컨디션 조절을 가장 잘해야 할 거 같아. 지금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정도는 휴식을 취할 생각이야”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3경기가 남아있다. 조심으로 되돌아보겠다. 특히 5000m 금메달에 욕심난다. 계주 금메달은 이번엔 가져오면 12년 만이다. 그 어떤 메달보다 꼭 금메달을 가져오고 싶다”고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7번 수술” 임효준 의지 대단... 대표팀 침착함 돋보여”

전이경 쇼트트랙 감독 관전평

올림픽 2회 연속 2관왕에 빛나는 전이경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감독이 ‘침착함’이 돋보인 첫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전 감독은 “정말 잘했다. (황)대현이가 안 넘어졌다면 1~3등 안에 들었을 것 같다. 1500m 결승에 9명이 올라가는 건 처음이라 혼선이 예상이었다”며 “(임)효준

이가 예상대로 잘했다. 7번이나 수술을 했다. 선수생활한 것보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 후배들에게 아주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어드벤스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력의 평준화’를 말했다.

그는 “타 선수의 방해로 넘어지는 상황에서 1~3위, 메달권, 상위권, 선두권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 어드벤스가 많다는

건 경기 자체가 박빙이었다는 의미다. 평준화가 됐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또 “올림픽 출전이 처음인 선수가 많았다. 긴장을 하고 의욕이 넘쳐서 해프닝이 많았다. 다행히 우리 선수들은 차분히 경기를 했다”며 “초반부터 앞으로 나와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위험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감독이 잘 지시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여자 계주에 대해서는 “초반부에 넘어

져서 크게 걱정 안 했다. 이유빈이 막내인데 손을 뻗어서 다음 주자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어리지만 침착하게 잘했다. 다 훈련된 상황이다. 여자 대표 클라스는 이 정도다. 믿고 보는 한국팀이다”며 웃음을 보였다.

그는 “첫 단추 잘 꿰었다. 사기 총전과 기선 제압을 잘했다. 7경기가 남아있다. 여자 선수들의 경우는 남은 경기가 거의 주종목이다. 차분하게 컨디션 조절 잘해야 할 것 같다”고 한국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아 감동의 성화 점화...한국 전통·첨단기술 어우러진 개회식 감동

개회식을 빛낸 스타들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지했던 올림픽이었다. 지구촌 대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단일팀 구성과 남북한 동관인장을 두고도 많은 말이 나왔다. 하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은 한국의 전통과 기술 그리고 유일한 분단국가의 ‘우리는 하나’를 보여준 감동의 무대가 됐다.

◇‘여왕의 귀환’ 성화 점화자 김연아
당연했지만 기대 이상이었던 ‘여왕’의 등장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 올림픽이자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맞이한 ‘스포츠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관심사 중 하나는 성화 점화자였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사진)였다. 2014 소치 올림픽에서는 판정 논란 속에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지만 그는 세계가 인정받은 ‘피겨 여왕’이다.

김연아가 101일간의 여정을 마친 불꽃을 성화대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 같았다. 그런데도 김연아가 등장하자 관중석은 물론 미디어석에서도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는 흰색 드레스에 피겨 스케이팅 차림



의 가장 김연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김연아만을 위한 빙판 위에서 여왕다운 몸짓으로 사람들을 흥시킨 그는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박종아(한국)와 정수현(북한)이 넘겨준 성화를 받아 평창 하늘을 밝혔다.

김연아는 지난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평창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의 연설자로 나서 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했다. 김연아로 시작된 평창 올림픽은 그의 손끝에서 역사의 순간을 맞았다.

김연아는 “성화가 (경기장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정말 올림픽 개막했다는 느낌이였다”며 “그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연기를 한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실수 없이 하려고 거기에만 집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송승환 총감독
개회식이 열린 강원도 대관령의 밤하늘에는 여러 차례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한국의 전통과 첨단 기술이 잘 어우러진 무대였다고 평가받은 개회식에서는 기네스 기록도 작성됐다.

스노보더를 형상화했던 1218개의 드론이 오묘 모양으로 바뀌면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장면은 최다 무인항공 공중 동시 비행 부문 기네스 기록으로 남게 됐다. 드론은 인텔이 LED 조명을 장착해 제작한 ‘슈팅 스타’로 한 대의 컴퓨터로 한 사람이 조종했다.

장구 연주자들과 무용수들이 공연하던 스타디움 바닥에 새겨진 태극 문양도 이번 개회식에서 꼽는 명 장면이다.

대중가요와 최신 K팝을 배경으로 이뤄진 선수들의 입장도 흥겨웠다. 특히 미국 선수단은 ‘강남 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며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동그렇게 열을 지어 입장식 내내 울동을 하며 분위기를 띄운 자원봉사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이번 올림픽의 개·폐회식 예산은 600억 정도. 앞선 올림픽들의 예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성공적인 개회식이라는 평가다.

개회식을 지휘한 송승환 총감독은 “최선을 다해 행사를 치렀고 예정했던 것의 90%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날씨는 걱정했는데 개회식을 잘 치를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적은 예산으로 출발해서 다른 대규모 개회식과 달리 작지만 강하고 속이 꽉 찬 행사를 만들려고 했다. 오히려 효과적인 계획을 짤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통가의 근육맨’ 타우파토푸아
통가의 기수 피타 타우파토푸아 화끈한 입장으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스타로 등극했다.

올림픽 개회식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진행됐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떨어졌다. 평창의 캄바람이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했지만 타우파토푸아의 탈의는 막지 못했다.

그는 지난 2016 리우 하계 올림픽에서 통가의 기수를 맡아 상의를 벗은 채 등장해 ‘통가의 근육맨’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물이다. 당시 태권도 대표로 출전했던 그는 2년이 지난 뒤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되어 통가 국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역시 상의를 벗은 채였다.



몇 차례 큰 부상을 입고 태권도 선수로 하계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가 스키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17년. 열대 나라에 살면서 단 한 번 눈을 봤던 그는 사비를 털어 스키를 배우며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여기에 경비가 부족해 모금 활동을 한 끝에 평창을 찾았다.

◇평화를 외친, 트럼프·김정은 님은꼴
평창에서 북미회담이 열렸다? 평화 올림픽, 평창 올림픽에 어울리는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다. 선수단 입장이 진행 중이던 시간, 두 사람의 등장에 미디어석이 술렁거렸다. 웅성웅성하던 취재진들은 이내 웃음을 터트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미디어석을 혼란에 빠

트린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을 ‘코스프레’한 외국인들이었다. <사진>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낸 금발 머리의 인물은 ‘USA’가 적힌 붉은색 모자에 같은 색 넥타이를 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그 옆에 있던 인물은 검정 뿔테 안경과 코트 차림으로 손을 높게 들고 흔들었다. 생김새는 물론 세세한 움직임까지,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체제를 밝히지 않은 두 사람은 일반석 티켓을 소유한 채 출입이 통제된 미디어석에 난입했다가 조직위원회의 안내로 자리를 떠야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취재단=김여울기자